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족한 줄로 매기라 (디모데전서 6:6-10)

영적 대각성 새벽 부흥회 JAMA

영적 각성 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JAMA(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가 오는 26일부터 8월 7일까지(주일 제외) 영적 대각성 새벽 부흥회를 개최한다.

JAMA의 강순영 목사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교회는 위기에 처한 모든 사회의 희망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부흥이다. 교회는 기도 회복을 바탕으로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고 성도들은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선교지에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적 대각성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였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는 “현재 미국 사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질서와 성 윤리가 위협받는 등 전례가 없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 우리는 교육과 문화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학은 무신론자와 사회주의자들이 판치고 의회에서는 성경적 가치관과 다른 법안들이 상정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성도들이 모여 무너져 가는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란다.” 고 말했다.

부흥회는 WWW.JAMAPRAYER.ORG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날짜별 부흥회 주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다.

- 7월 26일, 교회에 일어나라,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 7월 27일,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자의 사명, 이성철 목사(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 7월 28일, 첫사랑 회복을 위한 기도, 강일진 목사(순복음라스베가스교회)
- 7월 29일, 가정 회복을 위한 기도, 강민수 목사(레이크뷰언약교회)
- 7월 30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기도, 박만석 목사(Grace Community Chape)
- 7월 31일, 선교를 위한 기도, 임응우 목사(위싱턴성광교회)
- 8월 2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강순영 목사(JAMA)
- 8월 3일, 청년 부흥을 위한 기도, 안지웅 목사(New Hope Church)
- 8월 4일, 고국의 부흥을 위한 기도, 위성교 목사(뉴라이프교회)
- 8월 5일,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 이재호 목사(휴스턴한인중앙장로교회)
- 8월 6일, 인종 화합을 위한 기도, 배성호 목사(예수치유와 건강)
- 8월 7일, 왜 지금인가?, 김춘근 장로(JAMA)

▶ 문의: (310)995-3936, (903)804-4016
info@jamaglobal.com

얼마 전 여러 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실은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가난한 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방을 하다보면 그만하면 충분히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가정, 그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불행하게 사는 것을 때때로 발견을 합니다.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켜 스스로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행복을 행복으로 누릴 줄 아는 지족, 즉 족한 줄로 여기는 생활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비참하게 사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세상에 와서,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야하는 인생입니다. 한자로는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요, 스페인의 격언으로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다미엔 신부를 기억합니다. 이 분은 평생 외딴 섬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 살다가 자신도 그 병에 걸려 숨을 거둔 분입니다. 이 분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바치고,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왔다가 또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가야하는 인생임을 생각하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 가진 것에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진 것에 족한 줄 아는 마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족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해서 안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짐꾼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

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부해지려고 해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 과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었도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결코 돈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이 물질,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 이미 받은바 은혜와 축복을 족한 줄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사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족한 줄로 여기라, 오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식 목사-

	1은	2야		3청	구	서
	4신	빙	성		장	
5거	처		6미	7성	년	8자
북				주		9전
11선	12두		13공			모
	14절	15치	부	16심		17진
		명		18호	신	술
19결	정	타		흡		서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
- IRAs IRA Rollover
-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 감사대행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